

어바웃 IT 기술사 7

IT 기술사 과목별 소개 - 보안

글. 강자원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KBS MNC(Media Network Center)팀 (jwings@kbs.co.kr)

연재 목차

- 1회_ IT 기술사에 대하여(정통, 컴시옹, 정관)
- 2회_ 기술사 수검방식 및 전략(필기, 면접)
- 3회_ 기술사 공부법(서브노트작성법, 마인드맵)
- 4회_ SW공학
- 5회_ 데이터베이스
- 6회_ 네트워크
- 7회_ 보안
- 8회_ 경영정보
- 9회_ 디지털신서비스
- 10회_ 컴퓨터구조
- 11회_ 알고리즘
- 12회_ 정보시스템감리

최근 업계 전반에서 보안 전문가들은 경계(Perimeter)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용자, 디바이스,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재구성하고 있다. 보안은 최근 보안 관련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문제가 디지털 신서비스의 과목과 공통영역으로 많이 출제되는 추세다. 오늘날, 업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제 직원들은 ‘사무실’로 통칭하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디에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동시에 기업에 사이버 보안의 딜레마를 안겨준다. 보안 경계(Perimeter)는 더 이상 사무실 건물의 벽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SaaS 애플리케이션, IaaS, 데이터센터, 원격 사용자, IoT 디바이스 등을 통해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가 지속해서 전송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 범죄자가 그 어느 때 보다 광범위한 공격 표면(Attack surface)과 더 많은 진입점(Points of entry)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증거로, 2018년 사이버 공격의 34%가 내부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사이버 범죄자들은 기업 내부 보안 경계 내로 침입한 이후 적발되기 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기업의 민감한 중요 데이터를 유출하였고 실제로, 대부분 기업이 데이터의 유출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걱정스럽게도, 대부분의 기존 보안 인프라는 이미 세대에 뒤쳐져 있으며, 막아내야 할 공격의 수준보다 위험할 정도로 뒤쳐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명백히, 이제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에서 IT 기술사들은 CSO(Chief of Security Officer)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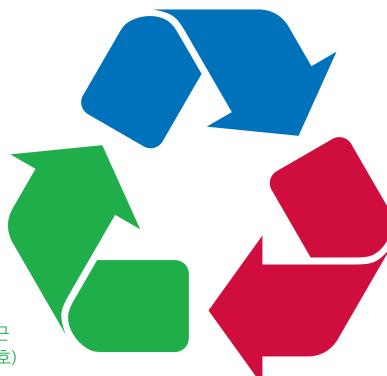


보안은 무엇인가?

보안과 보호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안과 정보보호는 어떤 의미일까? 보안(Security)이란 가치 있는 유무형 자산의 도난, 손실, 유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Protection)란 주로, 보안보다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며,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보호 또는 정보보안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을 확립하는 구성요소로 말하는 방식에는 보안 삼각형이 있다. 보안 3원칙은 보안 목표이기도 하며 C.I.A Triad(보안 삼각형)로 표현한다.

1. 기밀성(Confidentiality)

접근이 인가된 자만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공개로부터의 보호)



3. 가용성 (Availability)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 시 정보 및 관련자산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파괴/지체로부터의 보호)

2. 무결성 (Integrity)

정보 및 처리방법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
(변조로부터의 보호)

1. 기밀성(Confidentiality)은 인가된 사용자만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고

2. 무결성(Integrity)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인가된 방법으로만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3. 가용성(Availability)은 정보자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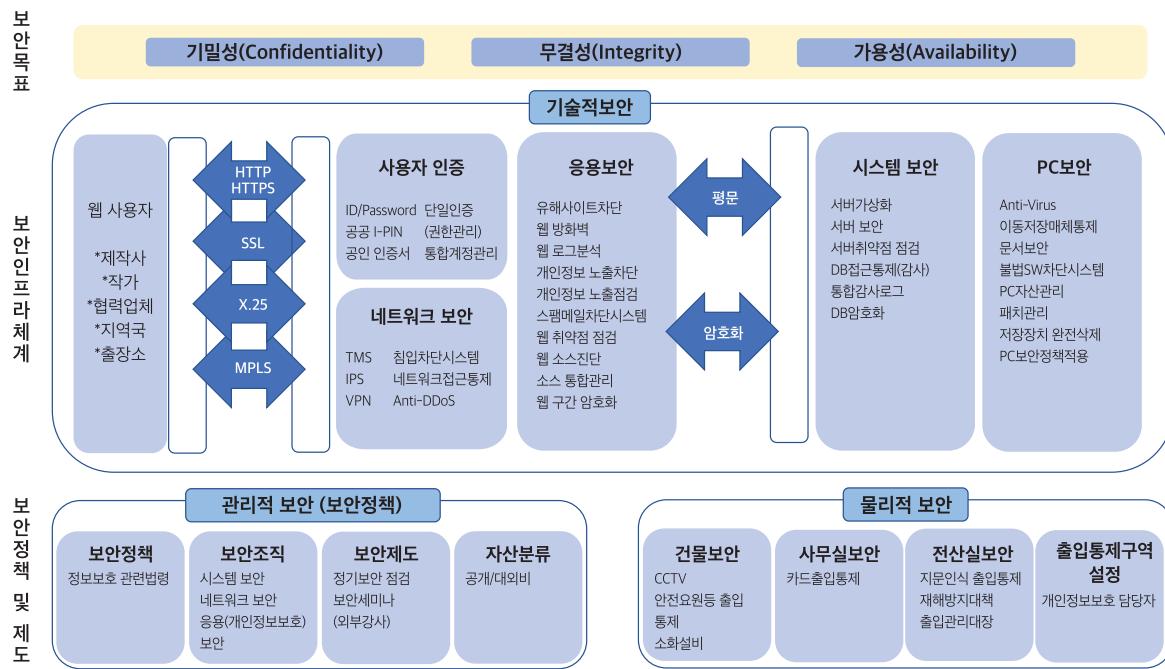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기밀성이란 방화벽 암호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인데 정당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도청, 도난 등의 기법으로 침해될 수 있다. 무결성은 오직 정부(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한국은행을 통해(인가된 방법으로만) 만들거나 바꿀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결성이 훼손될 경우) 위조지폐로 취급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정보가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가용성은 예를 들어 24시간 편의점에 밤이든 낮이든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항상 얻을 수 있는 상황 즉 언제나 가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 본 보안 과목의 세부 범위

아주 간단히 우리 기업의 정보보안 아키텍처를 외부와 내부 그리고 연계하는 구역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다음 표와 같다. 그리고 각각 세부적으로 해당하는 섹션을 시스템 관점으로 분류해보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술들을 열거해 보았다. 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들을 떠올려보면 해당하는 것들이 어느 섹션에 어느 기술에 속하는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안 과목을 준비할 때는 러프하게 표와 같이 준비해볼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전사적인 보안 거버넌스 관점의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면 다음장의 아래표와 같을 것이다. 전사적인 보안 거버넌스란 기업이 보안에 대해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의 아키텍처를 적용한 보안 참조모델 또는 전체적인 구조와 틀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안 거버넌스 또는 보안 참조모델이 있는 기업의 보안은 매우 탄탄하다 볼 수 있다. 해당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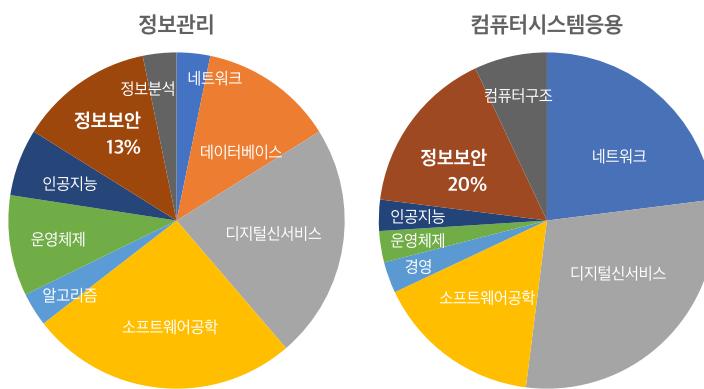


되게 보안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각각의 큰 섹션을 기준으로 세부 과목들을 학습하고 또 관련 기술요소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학습하면 될 것이다.



보안 과목의 출제 비중

가장 최근 117회 기출문제를 통해 정보관리 종목과 컴퓨터시스템응용 종목에서의 보안 문제 출제 비중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안 과목은 정보관리 종목 및 컴퓨터시스템응용 종목 모두 출제 비율이 비슷하다. 117회 시험에서 정보관리 종목에서는 5문제가 컴퓨터시스템응용 종목에서는 6문제가 출제되었다. 컴퓨터시스템응용 종목에서 좀 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출제되는 문항 수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그만큼 보안 과목은 중요하다. 시험뿐만 아니라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트렌드에 따른 모든 기술에 언급되는 것이 보안이기 때문이다.

기출문제를 통한 실전 보안 문제

117회 기출문제를 통해 보안 과목 출제 경향을 알아보자.

[정보관리 117회]

회차	교시	문제
117회	1	1. HMAC(Hash-based Message Authentication Code) 3. 양자암호통신
	3	5. CCTV 통합 관제센터의 폐쇄회로학면(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5.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수집기술과 증거분석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컴퓨터시스템응용 117회]

회차	교시	문제
117회	1	2. 양자정보통신에서 양자(Quantum)의 특성 12. IPsec
	2	6. 메시지 인증 기법과 디지털 서명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	5. IP 터널링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 SSL(Secure Sockets Layer) 프로토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1.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인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 우리기업도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2018년 5월에 시행된 GDPR 관련 주요 변경 사항 나. GDPR의 주요 골자 다. EU GDPR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라. 우리기업의 준비사항

보안 과목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출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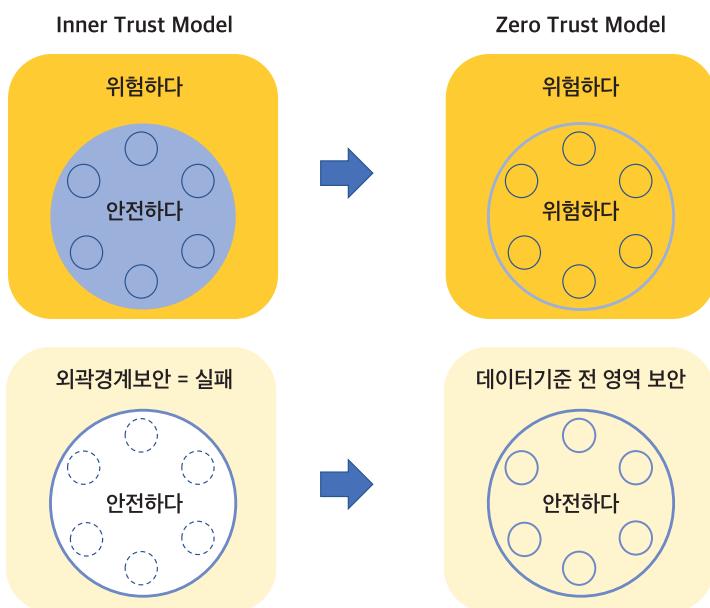
-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안 분야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보안 분야는 디지털 서비스의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면 관련하여 보안 기술, 문제점 및 이슈,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가 비슷한 시기에 출제된다.
- 신기술 관련하여 법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개선되고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 보안 관련 사고나 이슈가 도출된 토픽, APT, 랜섬웨어 등과 관련된 기반 기술들이 출제되고 있다.
- 암호, 알고리즘 등 기본 토픽에 대한 내용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학습 방향]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기술 학습 시 보안관점도 함께 학습하라.
- 보안사고, 보안트렌드와 이슈 및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가이드라인, 기반보안기술 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정보공학회지, 전자신문, 디지털타임즈, 주간기술동향, KISA 자료, 정보보호학회지 등
- 암호화 알고리즘, SW 취약점, PKI 등에 기본토픽을 정확히 학습하여야 기반 기술들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 기본에 충실할 것!

보안에 대한 방송기술인들의 이해와 접근 방식

기술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이것만은 알고 있었으면 한다. 적어도 방송기술인들 만큼은 보안에 대해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어본다. 서두에도 적었지만 최근 “아무도 믿지 마라”,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론이 제시되고 있다. 제로 트러스트. 시스템 외부와 내부를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곳이 위험하다고 전제하고, 적절한 인증 절차 없이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재차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원래 그랬어야 했던 당연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요란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듯 깔끔하게 용어 하나로 딱 정리되니 그 계몽적 집중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겠다. “같은 직원끼리 뭐 절차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 “우리가 한두 해 같이 일하나요?” 사실 보안사고의 대부분은 내부자를 통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주로 거론되는 ‘제로 트러스트’ 방법론은 보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에 집중된다. 시스템 전체를 한꺼번에 지켜야 할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지 않고 모든 부분을 ‘미세-분할(micro-segmentation)’ 요소로 나누고, 각 요소에 대해 ‘과립형 경계 시행(granular perimeter enforcement)’ 방식으로 보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모형은 보안의 관점과 정책 문제다.



데이터 접근은 엄격히 제한하되, 사용자 편의성은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효율이 급격히 저하된다. 그에 따라 불편이 횡계인 편법이 만연하게 되는데, 이를 단지 개인의 보안 의식 부족 탓으로만 묘는 지적은 결국 쓸데없는 협된 말로 그치고 마는 게 현실이다. 인간은 뭐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조건 편한 방법을 찾기 마련이니까. 필자가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방송제작 및 송출 그리고 유통과 관련하여 전 영역의 IT 시스템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안에 대한 의식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번 글을 통해 보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를 바라며 또 방송 IT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참조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술사가 방송기술인 중에 배출되길 희망해본다. [마인드맵 첨부]

다음 호에서는 경영정보 과목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목별 경영정보 과목의 출제 비중과 실전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며 또,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답안을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KPC 기술사회 네이버 카페 자료실(<https://cafe.naver.com/81th>) / <https://www.zdnet.co.kr/view/?no=20190610114522>

보안위협		정보보안 공격 : 정보수집→침입→공격력		보안위협	
정보기능(유비쿼터스 5대 위협) : 길(Little Sister)/사/비/기/사/비		정보기능(유비쿼터스 5대 위협) : 길(Little Sister)/사/비/기/사/비		정보기능(유비쿼터스 5대 위협) : 길(Little Sister)/사/비/기/사/비	
정보보안 공격 : 정보수집→침입→공격력		정보보안 공격 : 정보수집→침입→공격력		정보보안 공격 : 정보수집→침입→공격력	
Buffer Overflow : SUID 권한 프로그램 고약		Sniffing : 동일 서브넷 도청		정보보안 산업/자체	
유형 : Local/루트 권한//Remote(RPC, FPPD)		Promiscuous		정보보안 산업/자체	
Zero day Attack		Session Hijacking(Man in the Middle)		정보보안 산업/자체	
XSS Site Script		Replay Attack		정보보안 산업/자체	
유형 : 백신식(CSRF/요청번조), 저정(서버동등)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QL Injection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유형 : Authentication Bypass('1='1), OS Call, Query Manipulation		Spoofing : 네트워크 허위		정보보안 산업/자체	
Drive By Download		DoS/Denial of Service		정보보안 산업/자체	
유형 : Plug-In API, 브라우저스크립트		Sniffing : 동일 서브넷 도청		정보보안 산업/자체	
trap door		Replay Attack		정보보안 산업/자체	
악성 프로그램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비이커스 : 차기증식, 복제, 은/기성 트루이미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특징 : 정상 프로그램 기장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기술 : Server, Client, Plug-in, Port 점령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Worm : 복사, Poly/Meta-morphic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tuxnet : 사이버미디어 산업/시설 공격 협동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py-ware : 정보행위 분석, 동작제어, 금융용 요구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Ransom-ware : 암호화/C로 암호화/해제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Bot : Bot Master 명령을 기다리는 중继 노드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Rootkit : 인식/작동 차단 체계 지원 P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Auto Program : 게임을 스스로 플레이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Out of Game : 때때로 놀는 그림책으로 죽음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OWASP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기준 : 위험평가 방식/율리진 정도, 탐지율이, 공격용이, 기술영향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10대위협 : 인식주체(C로 암호화/해제)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사이비 경보수습 : 심각(R)→경계(O)→주의(Y)→관심(B)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		보안분석		정보보안 산업/자체	
Honeypot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erver : Data Control, Data Capture, Data Collection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Client : Low Interactive(낮음), High Interactive(높음)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NMS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RDP/Railgun, Proactive, Image Spam 처리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Bulk(1TON), SPAN(1TON), Virus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ISM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관리과정 : 정책/법률/위험/구현/시사/후속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부호 대책 : 정·조/분/문/설/설/설/설/설/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통·제 영역 : 정·조/분/문/설/설/설/설/설/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ISMS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관리과정 : 정책/법률/위험/구현/시사/후속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부호 대책 : 정·조/분/문/설/설/설/설/설/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통·제 영역 : 정·조/분/문/설/설/설/설/설/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문서화 : 요약, 문제, 유기류의 통제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e-Privacy(i-Safe,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CCU(CSEC+1SEC) : CCRAC(CAP-CCP)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구성 : 소개/일반, 보안기능요구, 보증요구사항, EAI(부/기/기/기/설/설/설)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보안산업 : 정보보안, 물리보안, 유통보안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mart phone 악성수집/방통위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리디(신한카드) 메일보안 무선 인증/검사/백신/번역/장치/신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SNS 개인정보 보호 수칙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사업자 :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미성년 보호, OPEN API 개인정보 관리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사용자 : 신중한 정보공유, 보호서 작성		정보보안 산업/자체		정보보안 산업/자체	